

## 골드러시 2009

해리슨 핫 스프링 지역이 현대판 골드러시(gold rush) 시대를 맞고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약 90분 거리에 있는 해리슨 지역은 최근 레크리에이션과 노후생활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지역 전문 부동산 회사에 따르면 현재 가격은 적당한 수준까지 하락하여 "좋은 매입시점"이라고 조사하였다.

노후생활자들 위한 단지 형태의 렌치스타일 타운 홈이 \$309,0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1년 전 가격 \$335,000에서 비교하면 괄목할 만큼 하락한 수준이다. 2층 구조의 일반주택은 약 \$400,000 이하에서 거래되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정점 가격에 비해 워터프런트에 지어진 주택들을 포함하여 해리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약 10%-15% 가 하락하였다. 매물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용 바이어와 휴양지 부동산 선호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호숫가 주변의 140만 달러 주택이 126만 달러에 최근에 거래되었으며 보트로만 출입이 가능한 180만 달러의 호화주택은 80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2009년도 휴양지 부동산 가격 조사에서도 해리슨 지역은 부동산 구입에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워터프런트 부동산 가격도 BC주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리슨의 렌탈 공실률(Rental Vacancy Rate)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우며 여름철 렌탈 수요는 매우 압도적이다. 투자용 렌탈 아파트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어서 투자자는 듀플렉스(duplex)나 트리플렉스(triplex)를 눈 여겨 볼만하다.

해리슨은 최근 도시환경 향상을 위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다운타운 중심 지역은 장애인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개조하였으며, 마을 입구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 하였고, 호수 주변으로 미관공사를 하였으며, 보트들을 위한 오물처리 스테이션도 신설하였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소매점과 레스토랑을 입점하였고, 9월에는 세계적 수준의 모래성 조각품 경연대회(Sandcastle Competition)도 유치하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BC주 남부에서 가장 크고 60km에 달하는 호수 해변과 미네랄 온천 등으로 유명하다.

해리슨의 역사는 1886년 St. Alice Hotel 과 Bath House 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화재로 인하여 1925년 Harrison Hotel 이 신설되었으며, 이것은 BC남서부의 최초 리조트라 할 수 있다. 해리슨이라는 이름은 1820년대 무역회사 Hudson Bay Company의 대주주인 벤자민 해리슨(Benjamin Harrison)에서 유래되었다. .

해리슨 핫 스프링 리조트는 현재 미국에 베이스를 둔 Delaware North Parks and Resorts 소유이며 5년 전 매입 이후 업그레이드 공사 비용으로만 약 1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Delaware North Parks and Resorts는 Delaware North Company의 자회사이며 Delaware North Company는 연간 약 20억 달러의 수입을 능가하는 개인 소유의 거대기업이다.

해리슨은 릴루엣(Lillooet) 과 함께 1850년대 카리부(Cariboo) 지역 골드러시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다.

해리슨은 오늘날 새로운 골드러시를 맞고 있다.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하러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 해리슨 핫 스프링, BC

인구: 1,600

평균주택가격: \$320,000

주요산업: 관광, 정부기관

잠재력: 저비용의 휴양지, 노후생활지

